



위험한 일본채

서울대 박훈 교수의 전환 시대의 일본론

박훈 지음

2023년 8월 24일 출간 | 판형 135*210 284쪽 | 18,000원 | 분야 사회과학/역사
| ISBN 979-11-6774-114-1 (03300) (주조) 사회과학>정치학/외교학 // (부조) 역사>일본사

책 소개

“한국은 일본을 경시하는 맨 마지막 나라가 돼야 한다”

일본이라면 무조건 “노!” 를 외치고

“반일이면 무죄” 라는 사람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쓴 일본론

일본 근대사 최고 권위자 서울대 박훈 교수가 막연한 혐오와 적대감을 견어내고 일본과 한일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한국만큼 일본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없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에 경쟁심을 불태우고, 그 동향에 신경을 쓰며 자주 비교한다. 하지만 과도한 ‘관심’에 비해 풍부한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체계적인 이해는 부족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일본을 과도하게 경시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지나치게 일본을 무서운 나라로 본다. 박훈 교수는 이런 심리의 근저에 모르는 대상에 대한 공포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대상에 대한 비하가 콤플렉스처럼 엉킨 채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일본을 주제로 한 갑론을박은 늘 반일이나 친일이나, 편 가르기와 감정싸움으로 결론 나고 만다. 저자는 이와 같은 일본 인식으로는 옹고집질 한일 간 역사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도, 급변하는 지역 질서 속 협력과 경쟁의 파트너로서 지내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위험한 일본책》에서 박훈 교수는 혐한과 반일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내려놓고 한국과 일본의 근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나아가 천황제 문제까지 실제 역사의 내용과 의미를 냉철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보여준다. 가까운 나라, 판이한 문화의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까, 한국과 일본의 상호 인식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 콤플렉스를 넘어 일본을 대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방법은 없을까. 박훈 교수의 통찰을 통해 독자들은 이 질문들에 대한 각자의 대답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라면 무조건 “노!” 를 외치고, “반일이면 무죄!” 라는 사람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쓴 일본론.

조선의 대실패와 일본의 대성공을 가른 차이는?

한일 근대사 두 나라의 성패를 날카롭게 성찰하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줄곧 한반도로부터 선진문물을 전수받았다. 그런 미개했던 섬나라가 메이지유신으로 온 좋게 변신에 성공해 벼락출세했고 부강해졌다. 이때 일본에 뒤쳐진 조선은 근대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후 국권까지 빼앗기는 치욕을 겪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정말 아깝게 일본에게 뒤쳐졌을 뿐이고 일본의 성공은 그저 어쩌다 얻어걸린 행운에 불과했던 것일까?

일본에게는 대성공의 역사, 한국에게는 대실패의 세월이었던 근대 초입, 두 나라는 무엇이 달랐고 그 배경엔 어떤 정치적, 사회경제적, 외교적 역량 차이가 존재했을까. 박훈 교수는 이 시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직시한다. (1부 가까운 나라, 판이한 문화- 한일 역사의 갈림길) 저자는 강화도조약부터 메이지유신까지, 김옥균부터 사카모토 료마까지, 한일 근대사의 주요 장면과 인물들을 되짚으며 두 나라의 성패를 정면에서 응시하고 날카롭게 성찰한다.

“당시의 일본인들은 무엇보다 세계 대세에 민감했다. 열심히 읽었고 진지하게 들었고 치열하게 공부했다. 그리고 다툼을 최소화하고 단결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아마도 2000년 역사상 가장 지리멸렬한 상태였을 것이다. 안타까운 시간이었다. 이 트라우마 때문인지 한국 시민들은 이 시기를 좀처럼 직시하려 하지 않았다.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거나 ‘구한말처럼 되지 말자’ 는 구호에 그쳤을 뿐, 역사의 진상을 정면에서 응시하려는 자세는 충분하지 않았다.”

무시와 두려움 사이, 콤플렉스 섞인 일본 인식 반일을, 혐한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도모할 때

‘왜놈’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인의 일본 멸시와 불신은 유서 깊다. 하지만 ‘왜놈’이라는 말에는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도 진하게 묻어 있다. ‘왜놈’이라며 일본을 얕잡아보는 사람이 일제日製의 우수성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감정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대다수 일본인들은 과거사에 대해 미안해하며 한국이라면 한 수 접어주는 태도를 보였지만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 사이, 한국이 턱밑까지 따라오자 ‘그래도 한국은 일본 밑에 있어야 한다’는 심리를 보이기 시작했다.

박훈 교수는 무시와 두려움이라는 콤플렉스에 발 묶여 있는 한일 상호 인식을 역사와 현실에 비추어 이야기한다. (2부 무시와 두려움 사이- 한국과 일본 상호 인식의 뒷) 독재라는 커다란 과오 때문에 완전히 잊힌 민족주의자 이승만의 저서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를 소개하며 오늘날 한국인이 말하는 ‘반일’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질문한다. 한편 군대와 전쟁 금지를 못 박아둔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 움직임을 향해 침략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주도자였던 일본인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아는지, 다시 어리석었던 군비경쟁과 전쟁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말할 수 있는지 통렬하게 묻는다. 감정적이고 몰역사적인 반일-혐한 분위기가 양국의 ‘공기’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저자는 양국 시민들이 당연하게 여겨온 사고방식을 의심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역사를 상대화해볼 것을 제안한다.

“1910년 조선이 망한 것은 반일 감정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일본을 증오하고 규탄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넘쳐났었고, 일본을 깔보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사방에 뻗뻗했다. 모자랐던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 40여 년간 일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게 우리의 운명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었다. 해방 후 지금까지 한일 간의 국력 차가 좁혀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선불리 우쭐거리는 것은 독약이다. 장차 우리가 일본을 정말 앞서는 날이 와도 우리는 일본을 경시하는 맨 마지막 나라가 돼야 한다.”

막연한 적대감과 멸시로는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콤플렉스를 넘어 일본을 상대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법

마지막으로 박훈 교수는 우리의 민족주의가 향해야 할 길과 민족주의를 넘어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할지 이야기한다. (3부 콤플렉스를 넘어서 미래로- 일본을 다루는 법) 민족주의가 맹목적으로 과잉된다면 민족에 해가 될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저자는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일본 악마화는 지적 나태, 과장, 은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신 저자는 일본 비판은 무력한 공포탄이 아니라 뼈 때리는 비판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화를 거부하고 불편한 진실도 직시해야 한다. 안중근에게 사살된 이토 히로부미만이 아니라 근대 일본을 디자인하고 실행한 이토 히로부미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민족주의가 국수주의가 아니라 세계를 향한 민족주의로 나아갈 수도,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행위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해야 한다. 다만 그것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이 자유와 민주, 법치와 평화의 세계로 가기 위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주의를 선동하기 위한, 언론사든 출판사든 시민단체든 자기 비즈니스를 위한, 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일본 비판은 이제 거둘 때가 되

었다. 도산 안창호는 그의 많은 어록에서, 백범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우남 이승만은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은 일본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다. 일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충고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 함께 손잡고 더 큰 세계로, 더 큰 가치를 위해 나아가자고 타이른다. 우리의 대일 자세도 이래야 한다.”

저자 소개

박훈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도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일본학과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근대 일본의 변혁 과정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 강연, 집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저서로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메이지유신을 설계한 최후의 사무라이들》, 《메이지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 《근대화와 동서양》(공저), 역서로 《일본의 설계자, 시부사와 에이이치》 등이 있다.

차례

프롤로그 일본이라면 무조건 “노!”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1부 가까운 나라, 판이한 문화- 한일 역사의 갈림길

1장 한국과 일본, 비슷한 듯 다른 듯

소용돌이의 한국, 상자 속의 일본
도시의 일본, 농촌의 조선
문의 나라 한국, 무의 나라 일본?
한국의 개인, 일본의 개인
민란 없는 일본, 민심의 나라 한국
순위 매기기 좋아하는 일본인
일본의 야쿠(やく)役, 한국의 리더십
지정학적 지옥 한국, 지질학적 지옥 일본
한반도와 ‘지정학 쓰나미’

2장 메이지 일본을 강하게 만든 힘

일본사 감상법 1
일본사 감상법 2
메이지유신과 586의 유신
막부파와 반막부파의 개혁·개방 경쟁
진영을 넘나든 정치가들의 활극, 메이지유신
메이지 일본의 ‘성공’ 비결
손정의가 로마에게 배운 것

3장 임기응변과 면종복배의 나라, 한국

한국사 감상법

세종의 ‘문명적 주체’ 만들기

한국혁명

조선자강의 아쉬움

‘뜨거운 감자’ 흥선대원군

구한말 한·중·일 외교전

김옥균과 미야자키 도텐의 선상 음주

아! 1898년

조선 식민지화의 세계사적 특수성

‘면종복배’를 헌법 전문에 넣자

한국혁명

2부 무시와 두려움 사이- 한국과 일본 상호 인식의 덧

4장 조선이 망한 것은 반일 감정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일본을 대하는 법

무엇을 위한 반일인가

일본을 경시하는 맨 마지막 나라가 되어야 한다

‘노 재팬’에서 일본의 몰락으로?

고대 일본 속의 한민족사를 찾아서

연금술은 우리의 적

혹시 ‘한국제국주의’를 원했던 건가

5장 한국이 일본 밑에 있어야 한다는 묘한 심리

일본인의 ‘한국 콤플렉스(?)’

점입가경, 일본의 험한

불친절해진 일본인

일본인은 정말 전쟁을 아는가

근대 일본의 문헌 목소리들

기로에 선 일본인의 자기인식

3부 콤플렉스를 넘어서 미래로- 일본을 다루는 법

6장 천황의 국민, 공화국의 시민

‘민족’과 ‘자유’도 일제 잔재?

천황인가, 일왕인가

천황과 탄핵

역사교육, 다시 ‘우물 안 개구리’로 유턴?

한일 대학생 ‘일본 인식의 덧’ 넘어서기

이상화의 ‘편파 해설’

7장 민족주의의 바깥을 상상하다

식민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문제’?

갈등 풀 의외의 실마리

일본사 시민강좌

한일 관계, 1998년처럼

21세기는 일본과 함께 춤을?

에필로그 일본을,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

부록 너를 보니 내 옛날 생각이 나서 좋다- 시바 료타료의 《한나라 기행》 리뷰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철도- 김훈의 《하얼빈》 리뷰

책 속에서

한국 민족주의가 일치단결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반일反日이다. 민족의 형성기에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식민지 된 지 110년이 넘었고, 해방된 지 8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반일 민족주의는 약해지기는커녕 더 기세를 떨치고 있다. 그것이 일본에 대한 정당·정확한 비판이라면 뭐가 나무랄 일이겠는가. 그러나 내가 우려하는 것은 많은 반일 담론이 과학·학문적 근거에, 심지어는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_ 7쪽, 프롤로그

한국인만큼 일본을 비판할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드물 것이다. 일본에 오랜 기간 고초를 겪었고 일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의식에 기초한 일본 비난은 더 많은 사람을 장기간에 걸쳐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일본 비판을 통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민족주의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 법치와 인권, 평화와 복지의 세상을 여는 담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_ 8쪽, 프롤로그

사회나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위에 두고, 사회에 대한 개인의 비판, 저항, 이탈을 용인하는 것을 개인주의라고 한다면, 일본은 개인주의가 매우 희박한 사회다. 소속 집단보다 개인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보통의 일본인은 거의 없을 것이며, 집단을 상대로 대의 혹은 자기이익을 내걸고 투쟁하는 개인도 드물다. (...) 그런 사회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모두가 모두를 배려 혹은 의식하며 질서와 규율을 지키고 공동의 이익(예를 들면 국익)을 추구하기에 용이하다. 그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긴장과 반발의 에너지를 무마하는 장치가 '고립의 허용'이다. _ 35~36쪽, 한국의 개인, 일본의 개인

이승만은 이 책에서 격렬한 반일 민족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지만, 그저 일본이라서 증오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일본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평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다. 그가 '반일'을 통해 추 구하려 했던 것은 자유와 민주였다. '반일'을 통해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로 가는 것은 그가 한사코 저지하고자 했던 길이다. '반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는 반일인가'가 중요하다. _ 152쪽, 무엇을 위한 반일인가

1910년 조선이 망한 것은 반일 감정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일본을 증오하고 규탄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넘쳐흘렀고, 일본을 깔보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사방에 뻗뻗했다. 모자랐던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 40여 년간 일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게 우리의 운명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었다. _ 156쪽, 일본을 경시하는 맨 마지막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일본 국민의 의식은 '천황' 아래 억눌려 있고, 일본의 민주주의 역시 그 이름 아래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공화국의 시민이다. 황제가 됐든, 천황이 됐든, 임금이 됐든 우리는 그 세계와 연을 끊고 공화국을 수립했다. '황'을 쓰느냐, 어떤 연호를 쓰느냐가 조선 백성에게는 중요했는지 몰라도 우리 공화국 시민에게는 아니다. 천황 아니라 '옥황상제'라 한들 가볍게 불러주면 된다. 그게 민주공화국 시민의 자부심이다. _ 217쪽, 천황인가, 일왕인가